

42년 망치 하나로 강을 바꾸다

스토우 야헤에



글 쓰는 순서
 ㉔ 전 재산 털어 간척사업 - 오오카지 시치베에
 ㉕ 죽음으로 8km 운하 뚫다 - 기요하라 타헤에
 ㉖ 42년 망치 하나로 강을 바꾸다 - 스토우 야헤에

4대강 개발 사업에 8개 교단 협의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사업 중단을 촉구한 반면 보수 성향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고질적 물 문제 해결과 지역 활성화”를 이유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일보 ‘이웃’은 17~18세기 일본 치산·치수 영웅 세 사람의 개발 사례를 통해 케이스 스터디(Case study)를 해봤다. 인력만으로 대자연의 흐름을 바꾼 역사(役事)는 200~300년이 지난 지금도 생태의 순환을 반복하며 그 공과를 후대가 안으며 살고 있다.

‘자연을 상대로 나쁜 일을 도모하여 해가 되면 그것이 재앙이다’



스토우 야헤에 동상



이즈모(일본)=글 전경희 기자·사진 윤여홍 선임기자

“인간은 지혜를 이용하여 대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 자연을 상대로 나쁜 일을 도모하여 해가 되면 그것이 재앙이다.” 스토우 야헤에(1651~1752). 42년 동안 망치와 끌만으로 산을 절개해 강의 흐름을 바꿔 홍수 피해로부터 농민을 구한 일본 마쓰에 번의 관리. 그는 1705년 1월 어느 날 치수 공사를 앞두고 아들 간로쿠를 불러 이같이 말한다. 에도시대 세습 면장(面長) 가문에 지나지 않은 낮은 벼슬살이를 했던 그는 조부가 실패했던 역사에 뛰어들었다. 50대 중반의 그는 아들에게 산을 옮겨 강줄기를 바꾸겠다는 무모한 꿈을 얘기했다.

스토우야헤에기념사업회 이시하라 시게루(82)의 얘기.

“그는 마을의 호농(豪農)이었습니다. 세도가는 아니어도 지방 말단 공직자로 편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었지요. 그렇지만 그의 가슴속엔 장마나 태풍만 왔다 하면 집과 농토가 휩쓸리는 농민 현실을 어떻게든 극복하려는 뜻을 품고 있었어요. 끌과 망치로 산을 뚫고 말겠다는 생각을 누가 할 수 있었겠어요. 그는 농민을 위해 가족과 재산을 모두 바친 사람입니다.”

쓰루기산 ‘ㄷ’ 모양 물길 병목현상 태풍만 오면 인명 피해 농지 유실 산 관통 암벽 뚫고 제방 축조 도전

야헤에가 태어난 곳은 앞서의 시치베에, 다헤에와 달리 산촌 마을에 가깝다. 험준한 산세 사이로 형성된 논, 밭을 부쳐 먹는 마을이 이우강을 중심으로 등성등성하 70여곳에 달했다. 이우강은 덴구산에서 발원이 돼 나카우미(中海)로 흘러드는 20km 길이다. 그런데 이 강줄기는 히요시마을 쓰루기산에 이르면 산 암벽에 막혀 ‘ㄷ’ 모양으로 흘러 돌아왔다. 평상시에는 각 지천의 물을 끌어 안으며 마을마다 풍부한 농수를 공급하는 것 줄 역할을 했다. 1702년 8월 이즈모 지방에 태풍이 닥쳤다. 순식간에 강물은 불었고 강 하구에 만조까지 겹치면서 히요시마을 일원 제방이 험없이 무너졌다. 무엇보다 쓰루기산으로 인해 물의 흐름이 병목 현상이 되어 빠져 나갈 곳

을 잃은 것이 원인이었다. 수백명이 죽고 집 4000 채가 유실됐다. 눈은 모래와 진흙으로 뒤덮였다. 이듬해에도 마찬가지였다. 야헤에는 이때를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지옥의 물길’이라고 했다. 마쓰에번은 구휼미를 보냈으나 턱없이 모자랐다. 면장이었던 야헤에는 이 대홍수를 겪으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치산·치수를 하겠다고 결심한다.

그의 이러한 결심은 뿌리가 있었다. 1650년대 그의 조부 스토우 야헤에 이에마사가 면장을 할 때도 4번이나 홍수가 닥쳐 마을이 황폐화됐었다. 이때 이에마사는 이우강의 물줄기를 바꾸는 것만이 살길이라고 믿었다. 소설 ‘스토우 야헤에’의 저자 고우에키바 오사무는 “그의 조부는 마을 회의를 소집해 ‘히요시수로공사’를 청원했다는 기록이 있다”며 “1650년 번의 지원을 받은 이에마사는 3년만에 걸쳐 토목공사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쓰루기산 거북이 목은 이때 1차 절개가 됐다. 높이와 폭 각 12.7m, 길이 29m에 이르는 난공사였다. 이즈모번도 대개 현무암층이 많으나 쓰루기산은 단단한 화강암이어서 번의 대규모 지원에도 3년이나 걸렸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1654년 홍수로 직선화한 제방은 눈 깜짝할 사이에 무너졌다. 12.7m의 좁은 폭으로는 역부족이었다. 농토가 2.5배나 늘어났다고 기뻐했던 농민은 용신의 재앙이라며 동요했다. 이후에도 세 차례에 걸쳐 홍수가 덮쳤다. 호구조재 때문에 마을 처녀들이 팔려갔다. 게다가 토목공사를 지원하던 막강한 영주 마즈다이라 나오마사(도쿠가와 이에야스 손자)마저 죽었다.

야헤에는 조부가 남긴 수로공사 계획서만으로도 부족하다고 보고 직접 제방공사 경험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마침 오사카 야마토강 대토목공사가 있는 것을 알고 마쓰에 지방 파견 인력에 합류해 오사카로 떠났다. 1704년의 일이었다.

“여기가 야헤에의 집터입니다. 그는 1706년 재산을 털어 공사를 시작합니다. 1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터무니없는 공사라고 이미 등을 돌렸고요. 돈을 주며 공사에 참여하라고 해도 저주가 있을 거라고 외면했습니다.” 야마토 겐(인간자연과학연구소 이사·시민운동가)은 야헤에의 집터에 태산을 옮겼었다고 했다. 야헤에는 면민이 외면한 가운

데 타지인 20여명과 함께 공사를 시작했다. 조부가 뚫은 절개암을 넓히고, 제방을 뚫는 공사였다.

그는 제방공사를 위해 창고의 쌀을 모두 처분, 임금으로 썼다. 그러나 타지 인부들도 제방 축조 공사가 아닌 바위를 깨서 수로를 만드는 일엔 동참하지 않았다. 용신의 노여움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야헤에는 벌 수 없이 혼자 비계 위에 올라 망치와 끌만으로 화강암을 부수었다. 눈과 비가 와도 망치질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기를 3년. 정성에 감복한 히요시마을 사람들이 그의 작업을 돕기 시작했다. 마침 번 관계자도 실패를 파악하고 격려금을 내놓자 공사에 탄력이 붙었다. 그리고 착공한 지 5년, 그동안 방치됐던 2차 수로 공사가 완료됐다.

그런데도 야헤에의 망치질은 멈추지 않았다. 폭 6m, 길이 1m는 더 깨야 대홍수로부터 안전하다고 판단해서다. 모든 농민이 돌아왔으며 그는 외로이 비계 위에서 돌을 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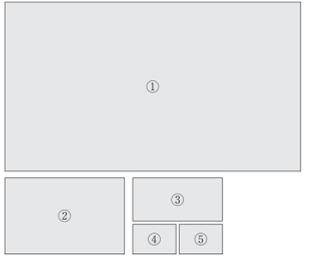
한테 비극이 닥쳤다. 시집도 가지 않은 딸이 질병으로 숨을 거두고 말았다. 사람들은 용신의 재앙이라고 다시 수군댔다. 계속되는 임박아를 떨치기 위해 62세에 종교계에 입문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주민은 동참 하면 관청은 지원 거절 창고 쌀 모두 처분해 인부 임금으로 97세 대역사 완공·후해 풍요 혜택

어느덧 10여년이 또 흘렀다. 그간 큰 비가 없어서 마을은 해마다 흉년이 들었다. 아들은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 적당히 하길 권했으나 듣지 않았다. 어느 날 아버지를 돌겠다고 바위를 깨던 아들 간로쿠가 피를 쏟으며 돌연사하고 만다. 상심한 아내마저 같은 해 목져 누워 끝내 일어나지 못했다. 또 3년 뒤 작은 아들 헤이자에몽도 급사했다. 대가 끊어지게 된 것이다. 정말 용신의 재앙 같았다.

그런데도 백발노인의 망치질은 계속됐다. 그리고 마침내 1747년 공사가 완료됐다. 그의 나이 97세였다. 바닷속 강을 파는 것과 같은 불가능한 일이 40여년의 망치질 끝에 이뤄졌다. 가족을 잃고, 재산을 헌납하고, 인생을 바친 대역사였다. 농민에게 대자연과 더불어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방에 난 작은 구멍을 손을 넣어 막았다는 네덜란드 소년 영웅 한스 브뤼커의 노년판 같다.

지난달 26일 오후 관계자들은 취재진을 기리도오시와 좀 떨어진 한 밭으로 안내했



①야헤에가 42년간 망치와 끌로 쪼아낸 절개암 사이로 이우강이 흐르고 있다. ②스토우야헤에기념사업회 이시하라 시게루 회장. ③옛 이우강터의 제방 일부. ④신사⑤야헤에가 묘지

다. 밭에 한국산 배추가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다. 그 옆으로 문덕 하나가 눈길을 끌었다. 1650년 야헤에의 조부가 번의 지원을 받아 축조한 제방의 일부가 토목 유산이 돼 지금까지 남아 있었다. 마쓰에시역사자료관 정비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존하는 제방 유적은 폭 10m, 높이 3m, 길이 50m로 작은 돌로 쌓은 것”이라고 밝혔다.

야헤에는 102세까지 장수했다. 그의 유력과 집터 등은 개척지 2~3km 범위 내에 위치해 유적지로서 후대에 산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매년 모세와 같은 지도력을 발휘하고 때론 주민과 갈등도 하며 하늘을 원망했던 야헤에, 자연과 맞선 그의 희생은 지금껏 백성에게 풍요를 가져다주고 있다.

에필로그

일본 치산·치수 영웅 3인에게 공통점이 있다. 첫째 이웃을 위한 개발 정신, 둘째 자기희생, 셋째 개발 이익을 탐하지 않은 것, 넷째 자연 경외, 다섯째 사회적 합의였다. 당시 창조세계의 보전과 같은 생명신학 관점의 인식은 없었다.

현대의 토목기술은 42년의 망치질로 극복하던 자연을 단 하루 만에 포클레인을 동원해

무너뜨릴 수 있다. 현대인에게 자연은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생활의 편리나 건설 이익에 따라 언제든 지주무를 수 있다는 정복적 자연관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크리스천에게 땅은 생명을 잉태하는 ‘어머니’다. 따라서 이를 학대하는 행위는 창조 질서에 대한 도전이다. 아마도 지구은난화로 지칭되는 재앙은 도전에 대한 당연한 결과일지 모른다. 우리의 4대강 개발 판단 여부는 정확히 얘기하자면 전문가들의 몫이다. 지원도 아닌 모강(母江)을 다스리는 데 따른 환경 공학적 결과, 사회적 가치를 일반인은 쉽게 알 수도, 판단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새만금 간척지 개발 19년을 통해 알 수 있듯 개발론자와 반대론자가 밀고 당기며 선순환적 결과를 낳았다. 사회적 합의가 녹아들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아직 모른다. 일본 운하사처럼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고 반면 치수와 간척 같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치열한 논쟁이 묻힌 채 빠르게 진행되는 4대강 개발 사업은 개인교의 판단처럼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시간을 두고 특정 강만 우선 개발해 생태질서를 관찰하는 케이스 스터디가 필요

하다. 성서적 관점에서 볼 때 생태계 전체가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jheon@kmb.co.kr

취재 지원: 일본 재단법인 인간자연과학연구소

日 인간자연과학연구소, 국민일보 조민제 사장에 감사장



국민일보 조민제(사진 가운데) 대표이사 사장이 일본 인간자연과학연구소 고마츠 아키오(66·왼쪽) 이사장으로부터 자연개발 보도와 관련해 감사장을 받았다.

고마츠 이사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1층에서 열린 국민가족 수요예배에 참석해 조민제 사장에게 “국민일보 섹션 ‘이웃’이 지난 1월 일본 이즈모 반도의 치산·치수 영웅 3인의 업적에 대해 ‘하나님과 자연’이라는 관점에서 보도해 주신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며 감사장을 수여했다. 수여식은 인간자연과학연구소 김현철(78·전 방송위원회 사무총장) 고문이 배석했다.

지난 1월 6일, 13일, 20일 등 3회에 걸쳐 보도된 기획물 ‘하나님과 자연’은 논란을 빚고 있는 4대강 개발 문제에 대해 창조질서 시각으로 해답을 얻고자 일본 시마네현(이즈모)에서 취재가 이뤄졌으며, 인간자연과학연구소가 취재를 지원했다. 일본 치산·치수 영웅 오카지 시치베에(1621~1689) 등 3인은 운하, 간척 등의 개발 사업을 국민의 편에서 추진했다. 본보는 이들이 개발한 300여년 후 자연환경의 장단점을 집중 보도했다.

조국현 기자

42年間 金づち一つで川の流れをかえる

周藤彌兵衛

4大江開発事業に対して8つの教団協議体である韓国キリスト教会協議会(NCCK)は事業中断を促した。その一方で、保守志向の韓国キリスト教総連合会は「長引く水問題の解決と地域活性化」を理由に支持する立場を明らかにした。これについて国民日報「イウツ(隣り)」は17-18世紀の日本における治山、治水の英雄、3人の開発事例を通じてケーススタディ(Case study)を試みた。

人力だけで大自然の流れを変えた事業は、200-300年が過ぎた今も生態の循環を繰り返して、その功績を後代が抱きながら暮らしている。

人間の知恵は大自然といっしょに生きて行くために使う



周藤彌兵衛 銅像



出雲(日本)=記事 全正熙記者、写真 尹汝弘専任記者

「人間は知恵を使って大自然といっしょに生きて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自然を相手に悪い事を企てて害になればそれが災いだ」

周藤彌兵衛(1651-1752)。42年の間、槌とのみだけで山を切り開いて川の流れを変え、洪水被害から農民を救った日本松江藩の官吏。彼は1705年1月のある日、治水工事を控えて、息子勘六を呼んでこのように言う。江戸時代、世襲の下郡の家柄に過ぎない低い位の彼は、祖父が失敗した歴史に跳び込んだのだ。50代半ばの彼は息子に、「山を移して川を変える」という無謀な夢を話した。

息子は精霊崇拝をする村の人々の指揮(つまはじき)が恐ろしかった。亀の首のような形をしていた剣山(つるぎ山)にまつられている竜神を畏れない父を心配した。彌兵衛は亀の頭の前で蛇行する川を、直線化しようと考えた。それには、首部分を切開かなければならない。頭部分に鎮座する神社の反対は、火を見るよりも明らかだった。

先月23日に訪れた松江市の日吉切通し(山などを切った道路や水路)には、美しい谷が目の前に広がっていた。水泳や釣り、またはリフティングをしても良い、素晴らしい谷だった。

この切通しは、治山治水のために開発者がどんな姿勢を持つべきかを示している。開発哲学の遺産が込められた所だ。周藤彌兵衛顕

彰会の石原茂会長(82)の話。

「彼は村の家農でした。権力者ではないが、地方の末端の公職者として楽に一生を終えることができたんです。ところが彼の胸の中には、梅雨や台風が来たといえば家と農地が押し流される農民の現実を、なんとしても克服したいという意志がありました。のみと槌で山を切り開くということを、当時、誰ができると考えたでしょう。彼は農民のために家族と財産をすべて捧げた人です」

川筋は剣山に沿って瓶の首「口」の形を描く、台風でも来れば人命被害と農地流失、山を貫き岸壁を切り開いて、堤防築造に挑戦

彌兵衛の生まれた所は、前回掲載した大槌七兵衛、清原太兵衛とは違い山村に近い。険しい山の間につくられた田畑で食べる村が、意宇川を中心に点々と70箇所余りあった。意宇川は天狗山を源流として中海に流れ込む長さ20Kmの川だ。

この川は、日吉村の剣山の岩壁に当たり「口」模様で迂回して流れる。普段は、いろいろなところの水を集めて、村ごとに豊かな農業用水を供給する乳脈の役目をした。

1702年8月、出雲地方に台風が近づいた。あつという間に川の水かさは増え、河口に押し寄せせる満潮まで重なり、日吉村周辺の堤防が崩れた。何よりも水の流れが、瓶の首のような剣山に当たり、抜ける所を失ったことが原因だった。数百人が死んで、家4000軒が失われた。田は砂と泥で覆われた。翌年も同

じだった。彌兵衛はこの時を「希望の光が見えない地獄の様」と言った。松江藩は地平し米(救援米)を送ったが、全く足りなかった。下郡だった彌兵衛はこの大洪水を経験し、どんなことがあっても治山治水をすと決心する。

彼のこのような決心には根拠があった。1650年代、彼の祖父周藤彌兵衛家正が下郡をした時も4回も洪水がおこり、村が荒廃した。この時、家正は意宇川の流れを変えることだけが生き延びる方法だと確信した。

小説「周藤彌兵衛」の著者、交易場修氏は「彼の祖父は村会議を召集して『日吉水路工事』を請願したという記録がある」と、「1650年、藩の支援を受けた家正は3年間にわたって土木工事を始めた」と話した。

この時、剣山の亀の首の、第1次切開が行われた。高さ幅はそれぞれ12.7m、長さ29mに至る難工事だった。剣山は硬い花崗岩(花崗閃緑岩)なので、藩の大規模支援があっても3年もかかった。

しかし喜びもつかの間、1654年の洪水に、直線化した堤防はあつという間に崩れた。12.7mの狭い幅の切通しでは力不足だった。農地が25倍も増えたと言っていた農民は、竜神の災いと言って動揺した。以後も3回にわたって洪水が襲った。当座の暮らしにも困ったため村の娘たちが売られた。それに土木工事を支援した力強い領主、松平直政(徳川家康の孫)までもが死んだ。

彌兵衛は祖父が残した水路工事計画書だけでは足りぬと思い、直接、堤防工事を経験しようと思い決めた。ちょうど大阪の大和川で大きな土木工事があることを知り、松江地方から派遣された人夫を引率して大阪に旅立った。1704年の事だった。

彼はそこで8ヶ月にわたって土木技術を詳しく習った後、藩に支援を要請したが、出費がかさんでいた藩は断った。

「ここが彌兵衛の家の跡地です。彼は1706年、財産をはたいて工事を始めます。10年かかるか、30年かかるか、誰も分からない事でした。村人は「途方もない工事」と、すぐに背を向けたんです。お金をあげて「工事に参加しなさい」と言っても、『祟りがある』とそっぽを向きました」

山本謙氏(人間自然科学研究所理事・市民運動家)は、彌兵衛の執念が泰山を動かしたと言った。彌兵衛は村人がそっぽを向いた中で、他の地方の人20人余りと一緒に工事を始めた。祖父が切った岩をさらに切り広げ、新川の堤防を造る工事だった。

彼は工事のために倉の米をみな処分し、賃

金を払った。しかしまた人夫たちも、堤防築造工事のみで、岩を壊して水路を造る事には参加しなかった。竜神の祟りが恐ろしかったからだ。彌兵衛は仕方なく一人で岩に上がって、槌とのみだけで岩を壊した。雪や雨が降っても、一人作業を止めなかった。そうして3年、彌兵衛の真心に感服した日吉の村人たちが彼の作業を助け始めた。また、藩の関係者も実態を把握して激励金を出したため、工事に弾みがついた。そして着工してから5年、その間放置されていた第2次水路工事が完了した。

それでも彌兵衛の槌音は止まらなかった。幅6m、深さ1mの拡張では、もっと掘らないと大洪水を十分に防げるとは判断できなかった。すべての農民が帰ると、彼は一人ぼつんと足場の上で岩を壊した。

そして悲劇がおこった。結婚もしていない娘が持病で死んでしまった。人々は竜神の災いだとまたうわさした。62歳で仏門に入ったのも、そんなうわさを無くしたいという理由からだ。

住民は参加、藩は支援拒絶、倉の米全てを処分して人夫の給食に 97歳の偉大な事業が完工…後世に豊穡の恵恩

いつのまにか、また10余年が経った。その間大雨がなく、村は毎年豊作だった。息子は父の健康のために程々にするよう勧めたが、父は聞かなかった。ある日、父を助けるつもりで岩を壊していた息子勘六が突然血を吐いて死んでしまう。傷心の妻も12年に寝込んで、再び起き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また3年後、幼い息子平佐衛門も急死した。代が途絶えてしまったのだ。本当に竜神の災いの様だった。

それなのに白髪の老人の槌音は続いた。そして遂に1747年、工事が完了した。彼は97歳になっていた。海の中に川を掘るような不可能な事が、40余年の植打の末に完成した。

(監注:日吉切通しの幅は上流部で約27.3m、下流部で約21.8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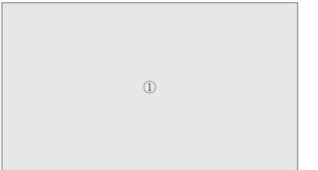
家族を失い、財産を捧げ、人生を捧げた大いなる歴史だった。農民が大自然と共に豊かに暮らすことができたようにしたのだ。堤防の小さな穴に指を入れて洪水を防いだという、オランダの少年英雄ハンスプリンコの老年版のようだ。

先月26日午後、関係者たちは取材陣を、切通しからちょっと離れた、ある畑に案内した。畑に韓国産白菜が生き生きと育って



新年企画 神と自然
日本 治山治水 英雄に 道をたずねて

記事掲載順
①全財産をかけた干拓作業 大槌七兵衛
②命をかけて8kmの運河をつくる 清原太兵衛
③42年間金づち一つで川の流れをかえる 周藤彌兵衛



①彌兵衛が42年間金づちのみで花崗閃緑岩の間を打ちつけた。今は意宇川が流れている。②周藤彌兵衛顕彰会石原茂会長。③昔の意宇川堤防の一部。④神魂神社。⑤彌兵衛墓地。

いた。その横の一つの小さな丘が目を引いた。1650年、彌兵衛の祖父が松江藩の支援をもらって築造した堤防の一部が、土木遺産になって今も残っていた。松江歴史資料館整備室関係者は、「現存する堤防遺跡は幅10m、高さ3m、長さ50mで、小さな石を積み重ねるもの」と明らかにした。

彌兵衛は102歳まで長生きした。彼の家の跡地などは、切通しから2-3kmの範囲内に位置し、遺跡地として後代の生きた教育の場として活用されている。時にはモーゼのようなリーダーシップを発揮し、時には住民との葛藤もあり、天を仰いだ彌兵衛。自然と向かい合った彼の犠牲は、今に至るまで民に豊饒をもたらしてくれている。

エビローグ

日本の治山治水の英雄3人には共通点がある。第一に隣人のための開発精神、二番目に自己犠牲、三番目に開発によってもたらされる利益を望まないこと、四番目に自然に対する敬意、五番目に社会的合意だ。当時、創造世界の保全のような、生命神学の視座の認識はなかった。

現代の土木技術は42年の植打ちで乗り越えた自然を、たった一日で、ショバルカーを

使って崩すことができる。現代人にとって自然は敬意の対象ではなく、生活の利便性や建設利益のために、いつでも変え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征服的自然観が支配的だ。

しかし、クリスチャンにとって土地は生命を育む「母」だ。したがって、これを虐待する行為は創造秩序に対する挑戦だ。地球温暖化に代表される災いは、この挑戦に対する当たり前の結果かも知れない。

私たちの4大江開発事業の可否の判断は、正確さを求めるならば専門家たちの役割だ。全知全能でない我々が母なる河を治めることによる環境工学的結果、社会的価値は一般人には簡単には分からないし、判断することもできないからだ。

セマングム干拓地開発19年を通じて分かるように、開発論者と反対論者が押し引きしたりして、先進的な循環ができる結果を生んだ。社会的合意があったことだ。ところがその最終的な結果はまだ分からない。日本の運河開発事例のように無用の長物になりうる。その一方、治水は干拓のような肯定的効果をもたらすこともできる。

このような視点で見ると、熾烈な論争にもかかわらず、そのまま速いスピードで進む4大江開発事業は、プロテスタントの判断のように議論の余地があることは明らかだ。時間

において特定の港湾をまず開発して、生態系を観察するケーススタディが必要だ。聖書の観点で見ると、生態系全体が救援の対象だからだ。

jhjeon@kmib.co.kr

(財)人間自然科学研究所、国民日報趙曼濟社長に感謝状



国民日報 趙曼濟(チョミンジェ、写真中央)代表取締役社長が、日本人間自然科学研究所小松昭夫(66・左側)理事長から、自然開発報道に関して感謝状を受けた。

小松理事長は16日ソウル・汝矣島の国民日報ビル11階で開かれた“国民家族”の水曜礼拝に参加して、趙曼濟社長に国民日報セクション・イウツ(隣り)が去る1月、日本島根半島の治山治水の英雄三人の業績

に対して、「神と自然」という観点で報道してくださったことを光栄に思う」と、感謝状を授与した。授与式には人間自然科学研究所の金顯哲(キムヒョンチョル、78・前放送委員会企画室長)顧問が同席した。

チョ・グッヒョン記者